10 2026 vol.629

만남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교회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 선교 · 교육 · 성도의 교제 · 봉사

10월 목회력

02	금	·구역모임의 날
03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04	주일	·주일예배 성찬(1~5부)
09	금	·문화선교축제
11	주일	·사랑부·고등부·대학부·청년회·자유인·국제예배 성찬, 선교주일, 학원선교대회, 제직회
14	수 ~ 16 금	·선교부흥회
18	주일	·아동부찬양제 리틀스타
21	수	·선교바자회
23	금	·선교바자회, 심방준비회
25	주일	·종교개혁주일, 소그룹의 날, 사회봉사주일
30	금	·전도특별금요기도회

CONTENTS

05

이달의 말씀

02 예루살렘을 사랑합시다 _ 김운성

특집 새가족, 환영부터 정착까지

05 8주의 만남, 새가족이 교구의 가족이 되다 _ 탁현수
06 성경을 처음 펼친 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_ 백승민
07 메마른 믿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_ 김민경
08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내리는 믿음 _ 김연성
09 외톨이 같던 나를 다시 웃게 한 '이음' _ 고정민
10 필요할 때만 찾던 하나님, 이제는 함께 걷는 하나님 _ 김현우

다음세대 / 청년광장

12 예수님의 빛을 따라 달라진 내 마음 _ 김주찬양
14 LINK, 하나님과 연결되자 행복이 보였습니다 _ 김성윤
16 사랑을 주러 갔다가 믿음을 배우다 _ 전송현·민정빈·김미주·김봉규
18 잊고 온 짐가방, 하나님이 준비하신 4일 _ 박동진
20 화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_ 정주환

2026. 10
vol. 629
만남

16

40

22 운전석을 내드리니, 참된 자유가 시작 _ 김하랑
23 걱정을 씻어 주신 하나님, 사랑할 자유를 배우다 _ 이성진
24 우리의 젊음을 예배로 드립니다 _ 서상준·김하은·이지성

땅끝까지 이르러
26 영락교회 선교사역 축제에 초대합니다 _ 김진우
28 전도지를 받지 않던 손, 전도지를 나누는 손이 되다 _ 이춘옥

영락글로벌
30 한 선교사의 헌신, 한 민족의 찬송이 되기까지 _ 김주엽
32 익숙했던 찬양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까지 _ 장준혁

영락의 울타리
34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_ 김윤중
36 한국국제기드온 사역의 초창기 _ 조건진
38 가족을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_ 상담부
40 믿음의 경주, 기쁨의 동행 _ 최민혁
42 가정과 다음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공동체 _ 김천경
44 작은 기도에 보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응답 _ 윤수진
46 감사와 용서의 축복 _ 고윤숙
48 〈메시아〉와 제56회 연주회 _ 조형민
50 오직 주님의 은혜로 _ 김영혜
52 성경 속 한자이야기 恩惠 _ 김현중

교회소식
53 영락시어터 10월 상영 영화 _ 문화선교
54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 외
60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_ 이은혜
61 새아기·새가정

예루살렘을 사랑합시다

김운성 담임목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사도행전 1:4~5)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도시가 있다면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요, 가장 오랜 도시이면서도 가장 척박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 '평화의 도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주인이 바뀐 것도 스무 번이 넘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될 정도로 파괴된 것도 열 번이 넘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평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이슬람교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자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이 명령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변방이자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며 무시당하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사모했겠지만, 정이 가거나 좋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무서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

여러 이유로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
그러나, 최악의 장소가 가장 위대한 복음의 현장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그들을 좌절시켰고,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희끄무레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 건물들, 그리고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 및 바리새인 등은 모두 그들에게 적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을 보기만 해도 오그라붙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었고, 그 막연한 두려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만 두고 승천하시려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긴장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긋지긋한 원수들이 여전히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에게는 현재의 목회지가 기회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불황에 허덕이는 사업가에게는 회사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가난과 불화에 지친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이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자체가 정리하고 싶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충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최악의 장소, 최악의 조건이지만,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삶의 소명이요, 인생의 긍정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방언, 앉은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최초의 이적, 베드로의 설교로 삼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최초의 전도 집회, 최초의 교회 설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장소를 가장 위대한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에 이르는 복음 전파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워도 현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루살렘이 변하여 기적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만남

낯선 발걸음,
믿음의 가족으로

새가족의 여정은 낯선 교회에 등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교회의 가족이 되어 갑니다.
8주의 '이음'은 말씀과 삶을 나누며
새가족을 하나님과 공동체에 이어 줍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기쁨, 메마른 믿음의 회복,
외로움을 녹이는 공동체의 위로,
교구와 사역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그 안에서 피어납니다.
또 새가족 교육을 통해 막연히 알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동행을 시작한 고백도 만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 영혼을 붙드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만나봅니다.

8주의 만남, 새가족이 교구의 가족이 되다

탁현수 목사
중구·용산교구
목양부

이음 수료 기념 사진

새가족들의 소그룹 사역 '이음'

영락교회는 등록 성도만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이다 보니,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음'은 새가족들의 이런 형편을 돕기 위해 금년 3월, 새롭게 시작된 소그룹 사역입니다.

'이음'은 이름 그대로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공동체로 이어 주는 사역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10분, 제2식당에서 8주 동안 교구 교역자, 이음 리더와 함께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이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태어나 처음 성경을 펴는 분도 있고,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만,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음은 그렇게 새가족을 교구의 한 지체로 세워 갑니다.

이음 가족에서 교구의 가족으로

이음은 8주로 끝나지만,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수료를 앞둔 7~8주 차가 되면 교구의 구역장님과 지회 임원을 초대해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이음 가족은 자연스럽게 교구의 가족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네 분의 소감문을 소개합니다. 네 분 모두 이음에 참여하기 전의 모습은 저마다 달랐지만, 이음을 통해 하나님과 공동체에 더 가까워졌다는 점은 같습니다.

3월에 시작된 이음의 여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등록한 모든 분이 새가족을 넘어 교구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음의 목표입니다. 이음과 함께 이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자 하시는 분은 담당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주일 오전 11시 10분 제2식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 펼친 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백승민 성도
중구·용산교구

말씀을 통해 열린 마음

올해 4월 부활절, 친구 부부의 인도로 영락교회에 등록한 뒤 6월부터 '이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교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음을 통해 닫혀 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음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믿고 달라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음을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음 리더 권사님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읽어 나갔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 흥미진진했고, 읽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영문 성경으로도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로, 이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23년 1월, 뇌출혈로 쓰러져 두 번의 수술을 받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받고 교회에 나와 성경을 읽으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뒤 저와 아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8주간 말씀을 배우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음으로 이끌어 주신 구역장님과 이음 리더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믿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김민경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순종의 발걸음, 다시 열린 말씀

새신자로 등록하고 신앙정착팀을 수료한 후, 친정 엄마와 전도사님의 권유로 '이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돌아보니 모든 과정이 저를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일곱 살 아들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임이 제게 꼭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락교회에 와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성경을 펼치게 되었고, 이음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말씀을 통해, 생기 없이 메말랐던 제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고 배우며 제 안의 믿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군대처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삶과 말씀을 나누는 이음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단단해지는 믿음

지금은 출애굽기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며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하며, 제 삶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이음에서 성도님들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감합니다. 서로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힘이자 기쁨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내리는 믿음

김연성 성도
서대문·은평교구

말씀과 감사로 깊어진 믿음

영락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서울로 이사하여 교회를 찾던 중, 예전에 다녔던 영락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등록 후 새가족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전도사님의 초대로 '이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음에서 만난 전도사님, 이음 리더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지 돌아보았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음에서는 매주 감사한 일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엔 늘 비슷한 제목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을 기다리며 일상 속 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가족으로

그러던 어느 날, 이음 모임 때 항상 불렀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찬양 가사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8주간의 이음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선한 싸움의 동역자가 되어 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음을 통해 이제는 새가족이 아니라 영락교회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과 소속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정성껏 다과를 준비해 주셨던 이음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모습에서 그 섬김의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 가는 기쁨, 성도님들과 믿음을 나누는 기쁨, 영락교회의 가족이 되어 가는 기쁨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음

외톨이 같던 나를 다시 웃게 한 '이음'

고정민 성도
고양·파주교구

대형 교회에서 느낀 외로움, '이음'을 만나다

샬롬, 먼저 저에게 소감문을 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영락교회에 등록해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너무 좋았지만, 인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지체가 없어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족으로 적응하기가 힘들겠구나.' 하고 아쉬워하던 그때, 담임목사님께서 새가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역인 '이음'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아 그날로 신청하고 개강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첫 모임엔 생각보다 새가족이 적어 잠시 실망했지만,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 리더분들과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편안한 친교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눠도 될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제 내면을 튼튼한 세 겹 줄처럼 세워 주시는 과정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이어 가며 외로움은 의미 없는 단어가 될 만큼 생기를 되찾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치유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나눈 기도 제목의 90% 이상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공동체에 이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다

저는 영락교회 이음 제1기 수료생으로, 이음을 통해 여전도회에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찬양사역에도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으며, 토요음악회와 고양·파주교구 친교의 날 찬양집회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외톨이 같던 저를 끌어올려 웃게 해 주신 이음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음 참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마련하신 이음에 참여만 하셔도 날로 늘어나는 감사의 제목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영락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만남

필요할 때만 찾던 하나님, 이제는 함께 걷는 하나님

김현우 성도
성동·광진교구

막연히 알고만 있던 하나님

저는 영락교회에 오기 전까지 교회에 등록해 다녀 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2000년, 첫 해외여행이자 출장으로 이스라엘에 3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텔아비브 한인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성지 순례의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가끔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기보다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상 중에는 일과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을 만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막힌 길에서 다시 찾은 하나님

그런데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던 중 제 의지와 상관없이 승진의 길이 막히고 생각지 못했던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시련을 겪었습

니다. 이때 저는 제 삶의 중심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만지시며 저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기도를 시작했으며 성경도 완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락교회로 이끄신 손길

그러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는 부족하고 바른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교회를 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친구 어머니이신 김경애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평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연락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섬기고 계신 영락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락교회를 처음 나왔고, 주일예배를 통해 매주 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등록 후 받은 새가족 교육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새가족분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짜 신앙인의 삶으로

앞으로도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나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내려놓으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남

예수님의 빛을 따라 달라진 내 마음

김주찬양
CebC
유년2부

설렘으로 떠난 첫 CebC 여름캠프

유년2부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김주찬양입니다. 올여름 처음으로 CebC 여름캠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다녀온 친구들에게 너무 재미있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기대가 됐고, 엄마께 영락기도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캠프 장소가 영락기도원이라는 말에 더 설렜었습니다. 2026년 CebC 여름캠프는 'Kingdom Quest. Follow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며 실패와 회복을 경험하고 결국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그려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복음

도착해서 팀을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퀘스트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Fisher of People'을 진행할 때 친한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착한 친구들인데도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꼭 전해줘야지.'라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저녁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Worship 때 드린 기도 시간에 회개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유치원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정말로 몇 년 만에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웃음과 자연으로 가득했던 캠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신나는 게임과 놀이를 했는데, 3학년 형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출출하던 참에 때마침 시원하고 달콤한 화채가 간식으로 나와서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어느덧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내일이면 캠프가 끝이라는 아쉬움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날이자 캠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기도원을 구경하고 싶어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산책을 했습니다. 곤충과 자연을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하는데, 그곳은 정말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어서 집 근처에선 볼 수 없는 매미 종류들도 많았습니다. 신나는 곤충 관찰을 마치고 돌아와 단체 사진도 찍고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드디어 기대했던 물놀이 시간이 되어 너무 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티브로 한 물고기와 빵 모양의 물건을, 바람을 이용해 빨리 옮기는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팀은 종이컵으로 만든 성을 물풍선으로 무너뜨리고 또 한 팀은 성이 무너지지 않게 방어하는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물에 젖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품게 된 성령님을 향한 기대

시간이 흘러 마지막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예배드렸습니다. 'Pentecost/The Early Church'를 주제로 한 말씀과 예배였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에서 열심히 봉독 연습을 했지만 살짝 떨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꼭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캠프에서의 마지막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날 점심에 짜장면이랑 미역국이 나왔는데, 원래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짜장이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리필해서 먹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CebC 여름캠프는 끝이 났습니다.

벌써 기다려지는 내년 여름

매끼 식사와 간식,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까지 정말 준비 과정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1박 2일 일정을 안전하고 즐겁게 잘 보낼 수 있게 힘써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CebC에 더 많은 동생들, 친구들, 형·누나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여름이 기대됩니다. 만남

LINK, 하나님과 연결되자 행복이 보였습니다

김성윤
중등부 3학년

호기심으로 시작한 아웃리치

제가 아웃리치를 신청한 이유는 싱가포르에 가 보고 싶었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싱가포르 현지 교회도 방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저 자신의 즐거움과 유명한 예배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웃리치 준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모였으며, 출발 일주일 전에는 주중에도 모였습니다. 선교 지역에 관해 알아가면서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 동안 생각보다 바쁜 일정과 힘든 환경에 아웃리치 가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또 제가 참여하는 태권도 공연 준비도 순탄치 않아 의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여름수련회 때 아웃리치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기 싫었던 예배에서 만난 은혜

이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오랜 시간 이동한 끝에 인도네시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빈민촌 예배에 가기 싫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빈민촌에 도착하니, 기름과 매연 냄새가 많이 느껴졌고 협소한 집들이 보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마주하며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별 감흥도 없었고 가는 것조차 내키지 않았던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예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기 전, 예배에 가기 싫어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채워 주신 행복

둘째 날과 셋째 날 찾아간 진승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었고, 우리가 준비한 공연과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큰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 감동이 커서 그랬는지 '여기 나를 왜 부르셨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덥고 힘들고 힘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숙소에서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기만 하고 깨달은 게 없어요. 이게 맞을까요?' 계속 아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불평불만이 있었나? 하기 싫었나?' 이 질문을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힘들 때, 졸릴 때, 지칠 때, 모든 순간에 행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행복을 채워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고, 감사가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LINK, 하나님과 공동체로 이어지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된 인상 깊은 예배였습니다.

'LINK, 연결'이라는 아웃리치의 주제처럼, 이번 아웃리치는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며 참된 행복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 주신 은혜, 진승중학교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쳐진 은혜, 순간순간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선생님들, 그리고 일정 내내 함께 동고동락했던 중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사랑을 주러 갔다가 믿음을 배우다

주러 갔지만,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전송현
고등부 1학년

저에겐 첫 해외여행이자 첫 미션트립이었습니다. "방학에는 공부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신청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마음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진승학교에서 저의 사역은 장애물 달리기 진행이었는데,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다 보니 처음에는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뛰고 웃는 사이, 어느새 제가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툴게 설명해도 웃어 주고,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었습니다. 선교는 제가 일방적으로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제가 무엇을 해냈는지 보여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는 자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민정빈
고등부 2학년

올봄, 처음 교회에 온 제가 그림 무언극 사역팀을 통해 만난 첫 사람이 김승민 형이었습니다. 형은 낯선 교회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어색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 주었을 뿐 아니라, 이번 미션트립에서도 친해지고 싶어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내성적인 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곁을 지키며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형을 통해 누군가를 편하게 해 주는 일은 특별한 말을 많이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가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이런 사랑과 섬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반대의 문이 열리자, 하나님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김미주
고등부 3학년

미션트립 신청이 한창일 때, 입시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선교의 마음이 생기면 부모님께도 마음이 생길 것이라며, 가서 받을 은혜와 배움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저녁,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셨던 아버지께서 미션트립에 가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 인생의 가치를 저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마음과 기대를 품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레이시아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싱가포르에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도 걱정이 아닌 기대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이들을 챙기러 갔다가, 믿음을 배웠습니다

김봉규
고등부 교사

올해부터 고등부를 섬기게 되었고, 여름휴가가 미션트립과 맞아 주저 없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정작 저는 선교적인 마음보다 조 아이들을 챙기는 일과 맡은 공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착한 진승학교에서, 그 학교 찬양팀의 인도에 맞춰 함께 찬양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활동 사역 중 현지 학생 한 명이 혼자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학생 둘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다가가 함께 서 주었습니다. 저녁 나눔에서는 한 학생이 그날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그래도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저는 우리 학생들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보았고, 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성장하여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만남

잊고 온 짐가방, 하나님이 준비하신 4일

박동진 집사
고양·파주교구

뜻밖에 시작된 4일간의 동행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영락교회 주최 축구캠프에 본의 아니게 전체 일정 동안 참가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락의 식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부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들의 협동심과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주 토요일 대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김형태 감독님의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되도록 참석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가 너무 멀어 참석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축구캠프 공고(주제: One Team One Spirit One Goal)를 보고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영락 축구캠프 소집일인 2026년 8월 11일, 저희 부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함께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 여유 있게 도착하고 나서야 아무도 아이의 짐가방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황당한 상황이 마냥 재미있어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이를 접수대에 데려다주고 짐가방을 속초까지 가져다주는 김에, '축구캠프 4일 여정 전체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던 수많은 섬김의 손길

얼핏 일정표를 보면 축구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 보였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너무나도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캠프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먹을거리를 챙겨 주시는 식사 담당

권사님들,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감독님과 코치님, 아이들의 필요를 챙겨 주시는 집사님 내외분,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 세 분과 시시때때로 간식과 보살핌을 제공해 주신 그 외 많은 분…. 이 많은 분의 섬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축구 교실 안에서 신앙과 몸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 준비하신 만남

그리고 저는 도착 첫날부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처럼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연히 축구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용감하게 캠프에 온 아이였습니다. 캠프 기간에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저와 둘이 있게 된 기회가 있어 잠시 이야기를 나눠 보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린 아이였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도하며 함께했습니다.

캠프 후반에는 이 아이와 어색했던 친구들이 서로를 챙겨 주고 배려해 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있던 상처가 축구캠프를 통해 조금씩 아물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축구캠프를 위해 봉사자를 준비하시고,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저와 아이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다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니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영혼이 어리고 연약해져서 상처받기 쉬울 때는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강해지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봉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여호와 이레'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영락교회에 다닌 지도 어느덧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유아부를 섬기게 되면서 점차 교회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함께 이음 리더로 섬기게 되었고, 새가족과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절망 가운데 삶이 무너져 있었다면, 올해는 신앙이 세워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임을, 이번 제25차 축구캠프를 통해 경험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화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주환 성도
청년회

저는 제48차 청년회 하기선교로 고흥 구암교회에 다녀온 정주환입니다. 이번 하기선교를 통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화합의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화합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던 준비, 먼저 우리 안의 화합에 집중

올해 하기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교회가 5개에서 9개로 늘어남에 따라 각 지교회에 배치해야 할 교역자분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팀당 인원이 25명가량으로 구성되면서 전 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 첫날부터 소수의 인원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하기선교를 위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선교지에서는 내가 화합의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합하기 위해 팀장단과 팀원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하기선교 준비 워크숍부터 화합을 생각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구암교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화합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먼저 화합을 이뤄 내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화합으로 풀다

그렇게 준비하고 드디어 하기선교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간 구암교회가 속한 마을은 고흥군 도화면에 있으며, 상동과 하동, 그리고 구암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상동과 하동, 구암항 쪽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상동과 하동 마을, 구암항 쪽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경계선이 있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니 구암교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기도 제목으로 '화합하는 교회'를 말씀해 주신 것이 선뜻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합을 중심으로 사역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사역 중 하나는 상동과 하동으로 나누어 각각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함께 진행했다가 또 싸움이 일어날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동 마을회관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동 마을회관에 계셨던 어르신분도 하동마을 주민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동마을의 어르신들은 쉼터와 정자 등 머무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마을회관에 모두 모시고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동마을 어르신들은 이처럼 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화합의 즐거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 작은 화합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주일이 되어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던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시며 조금이나마 그 자리에서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나뉘어 있던 마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화합하는 모습이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화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이 구암교회 동네에 방문하여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동에 계신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위쪽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이처럼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꾸준히 뿌려져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만남

운전석을 내드리니, 참된 자유가 시작

김하랑 성도
대학2부 요셉마을

첫째 날: 설렘의 시작과 '참된 자유'를 향한 첫걸음

2026년 영락교회 대학부 여름수련회 주제는 'Free!'였습니다. 삶 속에서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배우길 기도하며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벧엘 기도실에서 수련회를 함께할 조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겨울에 이어 부조장을 맡아 걱정도 많았지만, 따뜻한 환대와 유쾌한 대화 속에 금세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Free-view!' 프로그램에서는 승패를 떠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몰입하면서, 우리 조가 점차 하나의 공동체로 깊어져 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공동체의 하나 됨, 그리고 은혜의 하이라이트

둘째 날 아침은 소그룹 나눔 'Free-style'로 시작했습니다. 조원들이 용기 내어 고민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Freeze-ing!' 물놀이로 무더위를 잊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저녁 집회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우리 삶에서의 회개는 주님께 운전석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는 비유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내 힘으로 살려 했던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을 내 삶의 참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셋째 날: We Are Free,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갈등을 마주하겠지만, 우리는 수련회에서 드린 고백과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은 벗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며, 서로를 품어 줄 동역자가 있기에 담대히 걸어갈 것입니다. 영락대학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며,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참된 자유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걱정을 씻어 주신 하나님, 사랑할 자유를 배우다

이성진 성도
대학2부 바울마을
학생회 서기

걱정을 안고 시작한 수련회

두 달간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벗님들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는 할까, 우리의 계획대로 될까?' 하는 고민을 품고 수련원에 도착하기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준비 기도회에서 학생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 주자는 뜻으로 '발 씻기' 다짐을 나눴습니다. 제 다짐은 학생 회원들에게 '더 예쁘게 말하기'였습니다. 지난 겨울수련회 때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독촉하며 뾰족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ree',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집회 시간, 맨 뒷자리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 주신 광경이 너무나도 예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팀, 본인만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찾아가 함께 기도해 주는 벗님들의 모습이 수련회 제목 'Free'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는 내 뜻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을 앞세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고, 제게 즐겁게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수련회를 통해 제 걱정을 씻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느꼈고, 제 자리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이 자리를 인계한 뒤에도 그 자유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우리의 젊음을 예배로 드립니다

SMC(찬양대) – 총무 서상준

우리 교회의 교육부 소속인 SMC는 'Sanctus Missionary Choir(거룩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약자로, 대학부예배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찬양대가 대예배 찬양대처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청년의 시기에 찬양을 위해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그 자체도 귀하지만, 함께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대학부 찬양대의 참된 모습입니다. 서로 배우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헤세드(찬양팀) – 악기팀장 김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을 품은 '헤세드'는 영락대학부예배의 문을 찬양으로 활짝 여는 사역팀입니다. 오직 대학부 벗님들로만 구성된 우리는 대부분 찬양팀이 처음이거나 음악 전공자도 아니지만, 찬양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그 고백이 한없이 작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뜨거운 심장 소리로 가득한 영락대학부에서, 우리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맞잡은 손으로 함께 예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

안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이 매일 쌓여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춘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온 맘 다해 찬양으로 채워 가는 곳, 영락대학부예배의 중심에서 헤세드가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레마(미디어팀) – 총무 이지성

레마(RHEMA) 미디어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살아 있는 주관적인 말씀'이라는 '레마'의 의미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 성도님들과 대학부 공동체에 전달하는 예배팀입니다. 예배를 돕는 중계사역, 영상제작사역, 온라인소통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이 20대 청년의 때에 학업과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각자 삶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주말과 주중에도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세대로서 열심히 섬겨 나가는 레마 미디어팀원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영락교회 선교사역 축제에 초대합니다
- 2026 선교대회 10월 9일~23일 개최

김진우 목사
선교부

2026년 선교대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농어촌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10월 9일(금)부터 23일(금)까지 열립니다.

주제 성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6)입니다.

선교대회는 10월 9일(금) 저녁 베다니홀에서 특별금요기도회와 문화선교팀 창작 뮤지컬 〈깨어진 향유〉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뮤지컬 〈깨어진 향유〉는 10일(토)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한 번 더 공연될 예정입니다.

10월 11일(선교주일)에는 국내선교, 해외선교, 문화선교, 학원선교가 참여하는 선교주일 마당행사가 열리며, 오후 2시에는 외국어예배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10월 21일(수)과 23일(금)에는 '만남과 나눔' 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선교부흥회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14일(수)에는 초원교회 이기성 목사, 15일(목)에는 호남신학대학교 강성열 목사, 16일(금)에는 세상의빛교회 전세광 목사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요1부기도회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열리며, 선교부 전담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학원선교대회는 11일(선교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리며, 서울여자대학교회 장경철 목사가 말씀하십니다.

선교세미나는 14일(수)부터 17일(토)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 드림홀에서 열립니다. '농어촌세미나'는 14일(수)에 권태일 목사(우도교회)와 김우승 목사(서하교회), '군선교세미나'는 15일(목)에 문장옥 목사와 장윤진 목사, '해외선교세미나'는 16일(금)에 정연수 선교사(영락교회 인도 파송 선교사)와 박믿음 선교사(중앙아시아), 허성환 선교사(몽골)가 특강을 진행합니다. '유학생선교세미나'는 17일(토)에 홍광표 목사(새생명태국인교회), 담안유 목사(언더우드선교회), 권주은 목사(구미국제교회)가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락의 성도들과 각 선교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2026 선교대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농어촌 다음세대

선교부흥회

10월 14일(수) - 16일(금) 저녁 7:00 본당

14일(수)
이기성 목사
(초원교회)

15일(목)
강성열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16일(금)
전세광 목사
(세상의빛교회)

문화선교축제

10월 9일(금) 저녁 7:30, 10일(토) 오후 3:00 베다니홀
창작뮤지컬 " 깨어진 향유 "

선교주일

10월 11일(주일) 1~5부 예배 본당
말씀 : 김운성 담임목사

학원선교대회

10월 11일(주일) 찬양예배 본당
강사 : 장경철 목사(서울여대)

선교바자회

10월 21일(수), 23일(금) 베다니광장
여전도회 주관

선교세미나

- **농어촌 선교** : 10월 14일(수) 오후 1:30 - 5:30 드림홀
  강사 : 권태일 목사(우도교회), 김우승 목사(서하교회)
- **군 선교** : 10월 15일(목) 오후 1:30 - 4:30 드림홀
  강사 : 문장옥 목사(총회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총무)
  장윤진 목사(공군교육사령부 군종실장)
- **해외 선교** : 10월 16일(금) 오후 1:30 - 5:30 드림홀
  강사 : 정연수 선교사(인도), 박민음 선교사(중앙아시아)
  허성환 선교사(몽골)
- **유학생 선교** : 10월 17일(토) 오후 2:00 - 6:00 드림홀
  강사 : 홍광표 목사(새생명태국인교회)
  담안유 목사(언더우드선교회)
  권주은 목사(구미국제교회)

2026년 선교대회 선교헌금 / 농어촌선교 지원

- 농어촌교회 시설환경 개선 및 사역지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전도지를 받지 않던 손, 전도지를 나누는 손이 되다

이춘옥 성도
인천교구
전도부 노방전도 팀장

다시 거리로, 복음의 씨앗을 들고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멈춰 있던 노방전도를 창립 81주년을 맞아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고 나선 전도 대원들의 열정과 성도님, 목사님, 임원들의 기도가 모여 귀한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81년 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 지역 사회를 밝히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개척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거리로 나서는 길에는 낯섦과 부담도 있었지만,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을 다시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주일 오후, 거리로 나서는 전도대

전도팀은 주일 4부예배 후 오후 2시 30분에 봉사관 앞에 모여 '난 예수가 좋다오'를 찬양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기도 및 대표 기도 후 각 팀별로 청계천, 을지로, 명동, 한옥마을 쪽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저는 주로 한옥마을 쪽으로 갔는데, 한옥마을에는 외국

인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중국, 스페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영락교회 파란 띠를 매고 전도지를 한 장씩 나눠 주면 거절하는 분이 있는 반면, 친절히 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거절하던 한 사람의 변화

한옥마을 주차장 경비 아저씨에게 전도지를 건네드리면서 "영락교회에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전도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매주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계속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받지 않으시면 책상 앞에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어제 영락교회에 등록했어요."라며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영락교회가 바로 앞이니 목사님 말씀이나 한번 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등록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니,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찾아가자, 왜 그동안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두 달 동안 쉬었다고 말씀드리니, 전도지와 휴지를 10개만 두고 가면 본인이 주차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동안 기다렸다며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전도지를 더 많이 가져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아저씨의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저는 그저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며, 전도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남

한 선교사의 헌신,
한 민족의 찬송이 되기까지

김주엽 안수집사
강남교구
선교부 해외선교2팀장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와 제3여전도회 임원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 카오슝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은퇴를 앞두신 조병래 선교사의 후임 청빙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루카이족 찬송가 출판을 협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대만 남부 선교의 기지, 카오슝 한국교회

카오슝 도착 첫날, 선교부와 임원단은 카오슝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955년 정성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카오슝 한국교회는 7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특히 1961년 카오슝 한국국제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지역 교민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교민 교류의 장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한국국제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여 교민들의 영적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오슝 한국교회는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고(故) 한덕성 목사가 사역하시던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조병래 목사가 담당 목사로 계시며,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의 사역 현황과 후임 청빙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영락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만 루카이족 선교와 우타이교회

둘째 날, 방문단이 향한 곳은 카오슝 시내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핑둥현의 해발 2,000m 남부 고산지대에 자리한 루카이족의 우타이교회입니다. 루카이족은 대만 16개 원주민족 중 하나로, 약 14,000명의 부족민이 대만

사회와 어우러지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 문화와 유산을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향나무 십자가가 눈길을 사로잡는 우타이교회는, 1950년대 복음이 전파된 후 루카이족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지어진 특별한 성전입니다. 1976년 시작된 성전 건축은 현재 장로로 시무 중인 두(杜) 장로의 부군인 고(故) 두바난 선생의 설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변의 석재와 목재를 구하여 정성껏 쌓아 올렸으며, 2007년에 비로소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한편에는 루카이족 선교에 평생을 바친 고(故) 한덕성 선교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감동을 더합니다.

루카이족 복음화를 위한 성경과 찬송가 출판

고(故) 한덕성 선교사는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부터 우타이 마을을 수시로 오가며 루카이족 선교에 온 삶을 바치셨습니다. 특히 고유의 언어는 있으나 표기할 문자가 없던 루카이족을 위해, 영락교회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10여 년의 노력 끝에 2001년 로마자로 표기된 루카이어 신약성경을 출판했습니다.

한 선교사는 2006년 현지에서 순교하셨으나, 그 거룩한 헌신의 결실로 2017년 구약성경까지 완성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후 루카이 노회는 한 선교사의 뜻을 이어받아 루카이어 찬송가 번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마침내 올해 946쪽, 478곡이 수록된 찬송가의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영락교회의 후원으로 찬송가가 출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카이족의 목소리로 피어날 거룩한 찬양을 기대하며

루카이족 성도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모국어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송가를 가지게 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조차 없던 그들의 언어가 성경이 되고 찬송이 되기까지, 고(故) 한덕성 선교사의 피땀 어린 헌신 위에 영락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루카이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위로와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우타이교회와 영락교회, 나아가 온 열방의 교회가 한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거룩한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찬송가가 은혜 가운데 출간되고 대만 남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도록,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만남

익숙했던 찬양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까지

장준혁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호산나찬양대

익숙했던 찬양에 찾아온 새로운 의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 대원으로 예배를 섬겨 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제 삶에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연습 시간마다 다음 주 찬양을 연습하고, 주일이 되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는 익숙했던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순회연주를 앞두고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형식적인 기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일본 순회연주는, 습관처럼 드렸던 찬양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리리스 홀, 타마가와 성 학원, 게이센그리스도교회, 요도바시교회, 요한동경교회까지 총 다섯 곳에서 찬양을 드렸고,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단순히 잘 준비된 음악을 보여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미소로 깨달은 찬양의 힘

일본은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이센그리스도교회가 이러한 일본 교회의 현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될 때는 무표정으로 찬양을 들으시던 할아버지께서 점점 표정이 밝아지셨고, 연주 끝부분에 일본어로 준비해 간 찬양을 부를 때는 활짝 웃으시며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실력 자랑을 위한 음악 연주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며 느꼈던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시고 또 버스가 떠날 때까지 배웅해 주시는 성도분들을 보며, 찬양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에 우리가 찾아가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찬양이 그분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는 통로가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일본어 찬양으로 마음을 잇다

순회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중창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성중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순회연주에서 남성중창을 준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부족하더라도 참여하여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본어로 찬양을 준비하는 연습 과정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지만, 순회연주를 마치면 감사함과 찬양의 감동이 올 것이라며 선배님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일본어 찬양이 들리자, 저희와 눈을 마주치며 더욱 집중해 주셨던 각 교회의 성도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부족함보다 그분들께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음에 더 큰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지는 찬양

다시 한국에 돌아온 저는 일본에서 느낀 새로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며 호산나찬양대에서 계속 섬기려 합니다. 얼마나 멋진 장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찬양을 보기 위해 모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의 찬양이 위로와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회연주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남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김윤중 전도사
고양·파주교구
사회봉사부
영락수련원

올해 영락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글을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님께 다가가 반가운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레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글을 통해 '나를 보여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이 '교역자노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한 단어, '사랑'

먼저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지 고민하던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언제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거나 만나고 스쳐 가는 인연 속에서, 제가 가진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영락교회에 오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의 성격이나 성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이 있었고, 저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락교회의 공

동체를 경험하면서 '사랑은 내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구에서 낯설고 어색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 가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저 역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전히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단순히 제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품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받은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 주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사랑이 비록 작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발견한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찾고자 하는 시기가 꼭 오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이미 자기를 찾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답을 찾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 그런 분들에게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왔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제 모습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나를 찾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 완벽한 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를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습의 하나가 바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알고 계시고, 스스로 가치를 의심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 오늘의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자신을 찾고 계신 분들도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완남

한국국제기드온 사역의 초창기를 돌아보다

조건진 은퇴장로
종로·성북교구
한국국제기드온 원로회원

한경직 목사님 진중세례(1972년 4월)

1963년 서울, 기드온 사역의 시작

해방과 6.25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에는 빈곤한 나라에서는 교육이 살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고등학교는 시험을 쳐서 입학해야 했고, 읽을 책이 없어 아무 책이나 열심히 읽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을 전하기만 해도 학생들에게 전도가 되었고, 학교에서 받은 기드온 성경을 집과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제기드온협회에서 성경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고 성경을 요청하였으나, 기드온 회원만이 성경을 배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락교회 장로 열 분과 새문안교회 장로 두 분이 모여 1963년 10월 서울캠프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을 허봉락 장로가 맡아 우리나라에서도 기드온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순방예배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한 성경 보급

1964년 2월 23일 오후 7시, 새문안교회에서 기드온 순방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수길 장로가 '기드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현재는 본 예배 중에 3~5분 동안 기드온 메시지와 홍보영상을 본 후, 예배가 끝나면 출입문에서 기드온 회원이 들고 있는 헌금 주머니에 성서 헌금을 하거나 한

국국제기드온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1964년 7월 12일 오후 8시 영락교회에서 기드온 순방예배를 드리고 현수길 장로가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순방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영락교회는 단일 교회 최다 헌금 교회로 다년간 기록되었습니다.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기드온 순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드온 국제본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대한성서공회에 발주하여 제작한 성경을 기드온 회원들이 열심히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인천, 청주, 목포, 제주, 강릉 등 전국적으로 캠프가 조직되어 기드온 성경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되었고, 1970년대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70년, 군 장병에게도 전해진 기드온 성경

1970년대 한국 군인 사회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도 군에 입대하여 복무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던 시절이어서 책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한신 사령관이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전개했을 때 군종목사님들이 군인에게 전할 성경을 한국 교계에 요청했으나, 당시 가난한 한국 교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한국국제기드온에게 요청했습니다.

최창근 초대 전국 회장의 권면으로 길철우 서울캠프 총무가 미국 국제본부에 출장했으나, 캐나다에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기간이어서 캐나다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군인용 기드온 성경 20만 권(60만 군인의 1/3)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된 군인용 기드온 성경은 당시 비포장도로가 많고 화물 차량이 귀했던 시절이므로, 기드온 회원들이 승용차에 10박스(1,000권)씩 싣고 전방 부대를 찾아가 군종목사님의 협조로 군 장병들에게 성경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진중 세례에서 군 복음화로

1972년 4월, 20사단 연병장에서 군 장병 3,473명에게 한경직 목사 집례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연병장을 꽉 채운 세례자들, 집례하는 한경직 목사와 동역한 목사·장로들, 가족과 부대장을 비롯해 단상을 메운 관계자들, 군 선교 사역 담당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의 감격은 세계복음화대회(1966년 서독) 이후 한경직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해 온 군 복음화의 열매이며, 이후 군 선교의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군 선교 활동은 기도로 준비하고 1971년 5월 29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군 복음화를 위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군인교회 건축 후원과 군 복음화에 매진하여 1970년대 한국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는 기드온 사역의 전통

한국국제기드온 사역은 교회와 협력하여 전도하는 평신도 전도 활동의 모범이며, 1970년대 한국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선배들의 뒤를 따라 오늘의 기드온 회원들도 열심히 이어가며 사역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 만나고 전하며 권면함은 회원들의 기드온 사역이요, 불신자의 믿음과 교회의 기드온 순방예배 허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남

가족을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상담부(부장 김철승 장로)는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갈 수 있도록 '가족힐링캠프'를 준비했습니다.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95명의 성도가 베트남 나트랑에서 은혜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영락의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프에서 누린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다섯 가정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1

2

1 배우자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려 다시 온전케 하시려고,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배우자로 맺어 주신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아내와 자녀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시 태초부터 계획하신 아내를 허락하셨음을 깨달았을 때, 배우자야말로 나를 연단하고 회복시키시는 가장 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계정림 집사 _ 강남교구

2 우리 가정의 '시즌 2'를 시작하며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저희 가정의 '시즌 2'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0년이 가정의 기틀을 다지는 '시즌 1'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시즌 2'를 시작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부부 관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캠프를 시작하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라고 하신 목사님의 권면이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소 아내의 의견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무의미한 다툼으로 허비한 날들이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낮추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값진 과제이자 선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아내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부부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옥겸 성도 _ 고양·파주교구

3

4

5

3 가장 좋은 여행지는 함께하는 그 자리

돌이켜보면 이번 제1회 해외 가족힐링캠프의 가장 큰 축복은 이국적인 풍경이나 다채로운 활동 그 자체보다도, 좋은 만남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연합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가족을 바라보게 하셨고,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여행지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그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박현욱 성도 _ 고양·파주교구

4 부부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본 시간

3박 5일의 본 일정 동안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영적 재충전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자유 시간마다 모든 가정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주신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돌봄 교실 운영을 통해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오붓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보고 서로를 헤아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은, 큰 위로와 회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교류하지 못했던 여러 믿음의 가정들과 새롭게 교제하며 귀한 신앙의 연대를 맺게 된 것 또한 큰 축복이었습니다.

홍민정 성도 _ 서초교구

5 삶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이번 가족힐링캠프는 단순한 여행 일정을 넘어,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찬찬히 돌아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다소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는, 참으로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삶에 대한 염려가 일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해결하려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제가 쥐고 있던 통제권과 삶의 짐들을 조금씩 주님께 내어 드리며, '오직 믿음 안에서 푯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윤경원 성도 _ 성동·광진교구

믿음의 경주, **기쁨**의 동행

– 3040부부선교회 러닝크루 '동행'

최민혁 성도
노원교구
3040부부선교회
러닝크루 '동행' 총무

새벽기도의 여운을 안고, 운동화 끈을 조여 매다

토요일 새벽, 도시가 깨어나기 전 영락교회 예배당에는 먼저 불이 켜집니다. 새벽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 드린 성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그중 열 명 남짓이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만남카페로 모여듭니다. 3040부부선교회 러닝크루 '동행'의 아침은 그렇게 열립니다.

'동행'은 지난 6월, 믿음 안에서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자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달음질에 비유했습니다(고린도전서 9:24, 디모데후서 4:7). 다만 이 경주는 순위를 다투는 경기가 아니라, 앞선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처진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경주입니다. 크루의 이름을 '동행'이라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한 영락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또 나누자는 것이 이 모임이 품은 목적입니다.

기도로 열고, 나눔으로 닫는 아침

'동행'의 걸음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새벽기도가 끝난 직후 시작됩니다. 기도의 여운을 안은 채 만남카페에 모인 크루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남산 둘레길로 향합니다. '기억의 터' 옆으로 난 계단 길을 따라 오르면 이내 둘레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출발해 석호정을 지나 국립극장 뒤편을 찍고 돌

아오는 5km 코스는 나무 그늘이 넉넉해, 한여름 아침에도 상쾌하게 숨을 고르며 달릴 만합니다.

출발 전에는 지도목사인 전재량 목사님의 시작 기도가 있습니다. 흙길 위에 둥글게 둘러서서 눈을 감고, 오늘의 달음질과 한 주간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준비 운동으로 몸을 푼 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둘레길로 들어서면 발소리가 하나둘 포개집니다. 앞서가는 이는 속도를 늦추고, 숨이 차오르는 이는 곁의 발소리에 힘을 얻습니다. 서로의 호흡을 살피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크루가 가장 먼저 배우는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완주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과 마침 기도로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고, 만남카페로 돌아와 차 한 잔과 함께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 러닝은 오래 기억될 듯합니다. 이하나 집사님이 커다란 통 가득 시원한 수박을 담아 오신 것입니다. 땀에 젖은 채 둘러앉아 수박을 나눠 먹었고, "이 수박을 먹기 위해 달린 것 같다."라는 누군가의 말에 모두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이른 새벽부터 수박을 썰어 담았을 그 손길처럼, 은혜는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수고 안에 담겨 조용히 찾아옵니다.

달리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향기가

'동행'에는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초보부터 중급 이상의 실력자까지 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겨루지 않기에 누구나 함께할 수 있고, 어린 자녀가 부모와 나란히 달리는 모습도 정겹습니다. 처음 참여한 한 성도는 "저 같은 *런린이도 할 만하더라."라며 다음 달을

기다립니다. 크루는 연말까지 남산 둘레길 한 바퀴, 약 7.5km 완주를 목표로 조금씩 거리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그 목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러닝을 마치고 교회 앞에 모여 찍은 사진 속 얼굴들은 하나같이 환합니다. 새벽기도로 영을 채우고, 달리기로 몸을 세우며, 나눔으로 마음의 온기를 얻은 얼굴입니다. 예배당 정면에 걸린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복음의 능력은 이런 평범한 아침에도 우리를 일으켜 달리게 합니다. 크루가 펼쳐 든 배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사도행전 20:24)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행의 달리기는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향한 것입니다. 혼자라면 금세 지쳤을 오르막도, 곁에 함께 달리는 지체가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남산의 초록 그늘 아래 복음의 향기를 묻히며 달리는 이 걸음에 더 많은 성도님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행 크루는 매월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문의: 3040부부선교회 010-9199-4997

* 런린이: Running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러닝 초보를 뜻하는 신조어

고양·파주교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공동체** – 4남지회장 백세명 집사와 함께 나눈 교구 이야기

취재 **김천경** 기자

3455기도회(3040부터 5060 이상까지, 세대를 이어 함께하는 기도회)

송악기도처 방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가정

"요즘 우리 교구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가 참 많아졌습니다."

4남지회장 백세명 집사의 말이다. 교구 목사님의 인도로 엄마들의 온라인 모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에는 아빠들의 온라인 말씀 소그룹도 새롭게 시작되었다. 평일 저녁, 가정과 신앙을 함께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13명의 아빠가 첫 모임에 함께했다.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내어 모인 아빠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나누며 각자의 가정과 신앙을 돌아보았다. 가정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믿음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은 같다. 엄마들의 모임에 이어 아빠들의 말씀 소그룹까지 더해지며, 가정과 신앙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

세대를 잇는 예배, 관계를 잇는 만남

지난 8월 30일에는 교구 주관 찬양예배를 드렸다. 여러 가정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많은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평소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았던 여러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특히 3040 가정들의 활발한 참여가 더해지면서 예배의 자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3040 가정들이 교구 안에서 함께하기까지의 과정으로 화제가 이어졌다.

"3040 가정들은 아이들도 어리고 가정마다 사정도 달라서 처음에는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연락하면서 꾸준히 다가와 주셨어요.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크고 함께하는 시간도 쌓였어요.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신앙을 나누게 됐고, 신앙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관계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을 내어 주며 세워 온 공동체

백 집사는 교구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따뜻한 열정으로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교구"라고 표현했다. 그 말처럼 지금의 모습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하나의 행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먼저 마음을 내어 주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며,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세워 온 시간이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교구 밖으로 이어진 섬김과 기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교구 밖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교구의 가정들은 경남 함양 서하교회로 하기선교를 떠나 섬김의 자리에 함께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교구원이 재정으로 마음을 보태 주셔서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 주셨어요. 선교가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구 전체의 일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선교를 다녀온 뒤에도 그 마음은 계속되고 있다. 교구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 3455기도회를 열어 함께

아빠들 엄마들 줌모임

기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경남 함양 선교 해단 예배를 드렸다. 선교지에서 품었던 마음을 잊지 않고, 그곳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기도로 이어 가고 있다.

곁을 지키며 함께 걷는 믿음

이 공동체의 변화는 특별한 행사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먼저 안부를 묻고, 함께 예배할 자리를 만들고, 서로의 가정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왔다. 그 안에서 가정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세대는 함께 어우러지며,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서로의 곁을 지켜 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안부를 묻고, 기쁜 일에는 함께 웃고, 어려운 일에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쌓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

만남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다시 섬김이 되는 것.

오늘도 고양·파주교구에는 서로의 가정을 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닿고, 그 마음들이 모여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긴다. 그 걸음이 계속되는 곳, 고양·파주교구의 오늘이다. 만남

작은 기도에 보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응답

윤수진 집사
고양·파주교구

기대와 감사로 떠난 함양

지난 여름, 고양·파주교구의 하기선교팀은 함양군에 있는 서하교회와 인근 마을을 찾아 환경 정비와 벽화, 가정 방문 전도, 어린이 말씀·찬양과 만들기, 물놀이 등의 사역으로 지역 주민과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며,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94세 할머니와 나눈 기도

전도팀과 함께 마을을 다니며 여러 가정을 방문하던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94세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최근 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실 만큼 교회를 사모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리를 다쳐 왼쪽 무릎을 바닥에 짚을 수 없게 되셨고, 집 안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조차 힘드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할머니의 무릎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건강한 무릎으로 다시 교회에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자, 할머니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기도한다고 되겠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은 아직 없으신 듯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쳐 아직 회복 중인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무릎이 아파요. 제 무릎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할머니도 제가 생각나실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무릎을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

이후 다른 두 가정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뒤 마을회관 두 곳도 찾아갔지만,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돌아와 점심을 먹은 후, 서하교회 목사님께서 마을회관에 다시 가 보자고 하셔서 오후에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전 기도해 드렸던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저희를 보시고 놀라셨고, 저희 역시 무척 놀랐습니다. 집 안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드시다며 눈물을 흘리셨던 할머니께서 직접 마을회관까지 나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이 만남만으로 할머니의 무릎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할머니께서 몸을 일으켜 마을회관까지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작은 걸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보여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입술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잘해서도,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와 작은 순종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번 하기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한 사람의 아픔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품으며,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기뻐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그 자리에 보내 주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함께하며,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감사와 **용서**의 축복

고윤숙 은퇴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긍정심리학 박사

긍정심리학에서 과거의 부정 정서를 긍정 정서로 바꾸는 방법으로 용서와 감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그만큼 긍정적 기억을 강화하게 되고, 과거의 나쁜 일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익히면 과거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혜택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면, 용서는 피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인 셈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인에게 용서는 핵심 가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용서와 감사는 기독교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용서가 가져온 자유

용서는 고통을 누그러뜨리거나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하며 생활 만족도를 높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며,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다시 씀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나쁜 영향력을 약화해서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심이나 분노를 품게 되면 도리어 상처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상처를 입고 아픈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영혼을 자극하고 불안감에 빠뜨려 이성을 잃게 합니다. 용서는 결코 일어난 사건을 없던 일로 지워 버리는 것도, 가해자에게 이익을 안겨 주는 일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분노를 죄의식으로 느끼며 억압하려 하지만, 오히려 용서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영적 차원의 용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이 용서를 통해 변화된다면 관계 갈등을 극복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감사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로 다시 쓰는 인생

감사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역경을 통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여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고난과 역경도 이겨 내게 하며, 생활 만족도를 높여 주고, 찌든 삶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감사는 타인에 대한 관용과 친절, 공감 능력, 돕는 행동을 확장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하여 사회관계가 좋아집니다.

긍정심리학은 감사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미처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의 글을 씁니다. 그 사람을 초대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얼굴을 대하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살려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감사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된 계기가 된 구체적인 일을 함께 회상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최대 다섯 가지 정도 메모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일상에서 '감사 거리'를 찾게 되고 삶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함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 신념을 뛰어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상태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에 이처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미혼모의 딸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에서 교황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꼽히게 된 것은, 성경 말씀과 하루 중 고마웠던 일의 제목 세 가지를 날마다 노트에 적게 한 그녀의 양아버지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2026년 고윤숙 저, 바인일구 출판) 중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제56회 연주회

조형민 안수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시온찬양대 지휘자

올해 11월 29일(주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국교회연합 제56회 메시아 연주회가 영락교회 주관으로 열린다. 영락교회는 1964년 제1회 연주회를 시작으로 메시아 연주회 전통을 이어 왔으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주관한다. 이에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면모와 제56회 연주회의 특징을 소개한다.

조지 프리데릭 헨델(George Frideric Handel, 1685-1759)의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 HWV 56)〉는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다. 1741년 작곡되어 1742년 더블린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구약의 예언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승리까지 기독교 구원 서사를 다룬다. 오라토리오는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극적 작품으로 오페라와 달리 의상, 무대 장치, 연기 없이 연주된다. 특히 〈메시아〉는 배역 없이 성경 구절로 신학적 묵상을 제시한다. 대본은 찰스 제넌스(Charles Jennens)가 『흠정역 성서』(1611)와 영국 국교회의 『공동기도서』(1662)에서 편집했다. 작품은 총 3부로, 예언과 탄생(제1부), 고난과 부활 및 복음 전파(제2부), 부활의 확신과 최후의 심판, 영원한 생명(제3부)을 다룬다.

〈메시아〉는 오라토리오 장르에서 몇 가지 중대한 음악적 의의를 지닌다.

1. 이탈리아 오페라 유행 시기에 18세기 영어 오라토리오를 핵심 장르로 확립하며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2. 대위법, 푸가, 가사 세팅 기법이 집약되어 정통 종교 합창 작곡의 전형을 제시했다.

3. 다른 바로크 작품과 달리 내레이터나 인물 간의 극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이탈리아의 서정성, 독일의 대위법, 영국의 장엄함을 결합해 원숙한 바로크 종교 음악 스타일을 확립했다.

4. 초연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연주 역사를 가진 고전 음악으로, 성탄과 부활절 시기에 고정 레퍼토리로 연주된다.

〈메시아〉의 음악적 구성 요소

1. **서창(Recitative)**: 대사를 하듯 노래하며 감정을 고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해설자 없이 네 명의 독창자가 성경 구절을 전달한다.

2. **영창(Aria)**: 독창자가 말씀의 의미를 깊이 반추하도록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로크 시대 정통 연주 관습에 맞추어 알토 솔리스트로 남성 카운터테너를 기용해 역사적 고증을 더하고자 한다.

3. **합창(Chorus)**: '교회', '인류', '천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실질적 주인공이다. 헨델 특유의 대위법과 화성적 기법이 결합해 압도적 웅장함을 선사한다.

4. **관현악(Orchestra)**: 분위기를 묘사하는 축으로, '서곡'과 '전원 교향곡' 등이 대표적이며, 극적인 순간(예: 할렐루야)에는 트럼펫과 팀파니가 가세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번 제56회 메시아 연주회는 과거와 다른 두 가지 시도를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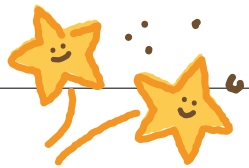
1. **원어 연주**: 한글 가사 대신 영어로 연주하여, 헨델이 의도한 음악과 가사 악센트를 일치시키고 원어 발음을 통해 (스크린의 한글 번역문과 함께) 더 생생한 표현을 기대한다.

2. **18세기 연주 관습(Performance practice) 적용**:

   - **음정(Pitch)**: 현대 표준(A=440Hz) 대신 고음악 표준인 A=415Hz(약 반음 낮음)을 채택해 색다른 느낌을 줄 것이다.
   - **악기**: 개량 악기 대신 바로크 시대 악기 연주 단체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과 협연해 옛 음색을 전한다.
   - **보컬 테크닉**: 비브라토를 절제하고 깨끗한 스트레이트 톤(Straight tone)을 사용한다.
   - **앙상블 규모와 조화**: 오케스트라를 37명으로 구성하고, 합창단은 오디션으로 선발된 한국교회연합 합창단으로 영락교회 찬양대원들이 중심축을 이루어 연합의 의미를 더한다. 소규모 원전 오케스트라와 대형 합창단의 음향적 조화를 위해 부족한 음량은 마이크로폰 증폭으로 조절한다.

이처럼 고증에 충실한 새로운 연주 스타일의 시도는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신선하고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음악에서 선구자 역할을 담당해 온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연주회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안남

오직 주님의 은혜로
– 헤븐리재가노인복지센터



김영혜 권사
강동·송파교구
헤븐리재가노인복지센터장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10년

헤븐리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헌신해 오시다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돌보겠다는 취지로, 2016년 7월 31일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돌봄 사역으로 오○○ 권사의 시모이신 현○○ 어르신(은퇴권사)을 찾아뵙고 돌봄을 시작한 것이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설립예배를 드리던 날의 설렘과 기대도 있었고, 부담과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교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르신의 삶 곁에서 이어 온 돌봄

헤븐리재가노인복지센터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영락교회 헤븐리사역의 일환으로 10년 전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현재 95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102분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행을 지원하는 등 전 직원이 각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고 겸손하게 섬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와 사랑 그리고 신뢰와 격려로 함께 이끌어 주신 교회, 복지재단, 어르신, 보호자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며 동행해 주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섬기는 마음

우리 어르신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헌신해 오신 믿음의 대선배님들로, 의료선교, 군선교, 교육선교, 가정선교 등에 힘써 오셨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헤븐리의 돌봄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돌봄을 받으시다가 별세하신 어르신도 많고, 가정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옮겨 가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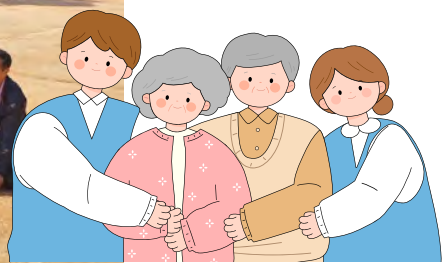
말씀과 기도로, 주신 달란트대로 귀한 사역에 일평생 힘쓰신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이 계시면 언제든지 헤븐리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저희 모두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돌봄 사역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여생도 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돌봄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만남



성경 속 한자이야기

10월 말씀 속 한자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24)

김현중 성도 _ 서대문·은평교구, 홍보출판부

한자 돋보기

恩惠

恩	惠
은혜 은	은혜 혜
옛 글자(소전)	
편안하게 누워 있는 사람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물레
심장, 마음	
한자 풀이	

성경 속 ‘은혜(恩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과 호의입니다.

은혜 은(恩)의 옛 글자를 살펴보면, 두 팔을 벌린 사람이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因) 있는 모습과 마음(心)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은혜 혜(惠)는 실을 감을 때 사용하는 실패가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모습에 마음(心)을 더한 글자입니다. 이처럼 한자 속 은혜(恩惠)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실타래처럼 편안한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 즉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바다를 헤매는 배를 향해 빛을 내어주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어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품어 주십니다.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 역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변 이웃들에게 그 은혜의 따스함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나 노력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영락시어터 10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소울 서퍼 (Soul Surfer, 2011) ALL 1시간 46분

4일

감독 : 숀 맥나마라 **출연** : 안나소피아 롭, 헬렌 헌트, 데니스 퀘이드, 로레인 니콜슨 외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난 베서니는 서핑을 즐기는 부모의 영향으로 매일 바다에서 놀고, 바다에서 배우며 성장해 간다. 걸음마보다 서핑을 더 먼저 배운 그녀에게 서핑은 최고의 스포츠이자 친구였으며, 프로 서퍼가 되는 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13살이 되던 해, 하와이 주 결선 서핑대회에 출전한 베서니는 1위로 예선을 통과하는데….

워룸 (War Room, 2015) 12 2시간

11일

감독 : 알렉스 켄드릭 **출연** : 프리실라 C. 샤이어, T.C. 스탤링스, 카렌 애버크롬비 외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갈등으로 흔들리는 토니와 엘리자베스 부부. 엘리자베스는 지혜로운 신앙인 클라라를 만나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작은 방을 자신만의 기도실로 만든다.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부부와 가정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미라클 워커 (The Miracle Worker, 1962) ALL 1시간 4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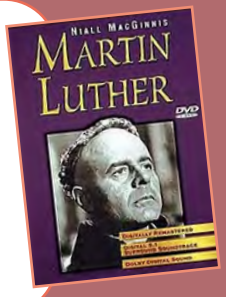
18일

감독 : 아서 펜 **출연** : 앤 밴크로프트, 패티 듀크 외

어린 시절, 병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된 헬렌 켈러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채 거칠게 행동한다. 가정교사 앤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고 헬렌에게 손가락 철자를 가르치며, 사물에는 각각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다. 두 사람이 인내와 사랑으로 소통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실화다.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953) 1시간 45분

25일



감독 : 어빙 피첼 **출연** : 가이 버니, 나이얼 맥기니스, 어빙 피첼 외

법학도의 길을 버리고 수도사가 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며, 인간은 행위나 면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그는 교황과 황제의 압력에도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굽히지 않는다. 이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 간다.

다시 은혜로 채워진 교사들, 다시 시작되는 다음세대

01

교육부(부장 조용철 장로) 하반기 기도회가 지난 8월 29일(토) 드림홀에서 열렸다. 올해 하반기 기도회는 특별히 다섯 가지 주제의 강의를 개설하여 'REFUEL 컨퍼런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교사 350명은 여름 사역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은혜의 시간을 되새기고, 새롭게 시작할 하반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부 방덕종 목사는 '온전한 순종이 변화를 가져옵니다'(열왕기하 5장 1~14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방 목사는 "신앙의 살아 있는 증거는 변화"라며, "대단한 사람이 아내의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고, 그 겸손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치유는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겸손과 순종을 강조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때까지 순종하자."라고 독려했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미리 신청한 대로 원하는 강의별로 흩어져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준비된 강의 주제는 1) 트렌드(황인권 대표), 2) ADHD 이해와 소통(이예나 임상심리전문가), 3) 조직/리더십(김성중 목사), 4) 영성/회복(최창수 목사), 5) Z+Alpha 세대 교육 및 소통(유승현 목사) 등 총 5가지였다.

고등부 교사 신정원 집사는 '시대의 트렌드와 다음세대'를 듣고 "'5無 교회가 온다(십자가/새벽 예배/성경 공부/구역/장로)'의 의미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다음세대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라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라고 평했다.

제공 한지희 집사_교육부 서기

2027년 표어 ‘존경과 환대로 잔치하는 교회’

02

교회의 2027년 사역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제50회 정책당회가 지난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경기도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열렸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2027년도 영락교회 목회 방향 제언’을 통해, 2027년은 현 담임목사의 은퇴 및 새 담임목사 부임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성경적 신앙을 철저하게 붙들고, 장로교 전통, 교단의 정서, 영락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며 지켜나가는 동시에 시대 변화 흐름에 맞는 새로운 도전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새 담임목사를 존경과 환대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존경과 환대의 마음이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 사이에 흘러넘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존경과 환대로 잔치하는 교회’라는 2027년 표어도 이러한 배경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당회에서는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예측과 구조조정’, ‘시니어 사역’ 등 새로운 정책과 사역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발표도 진행했다.

03

권사회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개최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가 지난 8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권사회(회장 오정선 권사) 주관으로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이번 통독사경회는 탁현수 목사의 인도로 16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탁 목사는 신·구약성경을 맥락에 따라 섬세하게 설명하는 개요 강의로 일정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성경 음성 파일을 들으며 말씀 자막이 포함된 영상으로 통독에 집중했고, 성경의 흐름과 역사를 이해하는 알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5일간의 통독사경회 동안 권사회 임원들은 푸짐한 간식으로 정성껏 섬겨, 참가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했다.

마지막 시간에 탁 목사는 참가자 모두가 요한계시록 22장을 합독한 후, 말씀대로 살아가며 함께 열매 맺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기도로 통독사경회를 마쳤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2027 항존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 [항존직 선거] ④항 규정과 당회결의에 따라 장로 15명과 안수집사 1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한 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일정

▶ **후보추천서 접수** 9월 14일(월) ~ 9월 27일(주일)

▶ **공천후보자 기도회** 10월 18일(주일) 찬양예배 후, 50주년기념관 503호

▶ **선거일자**

본 투표는 후보를 확정한 후 2차에 걸쳐 전산개표방식으로 투개표를 진행한다.

1차 투표(후보대상) : 11월 1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2차 투표(1.5배수) : 11월 8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투표장소 봉사관 1층 및 지하 1층

▣ 후보의 선정

1. 장로, 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를 당회에서 공천하여 선출인원(장로 15인, 안수집사 15인)의 2배수를 후보로 선정한다.
2. 2차 투표는 미 선출 인원의 1.5배수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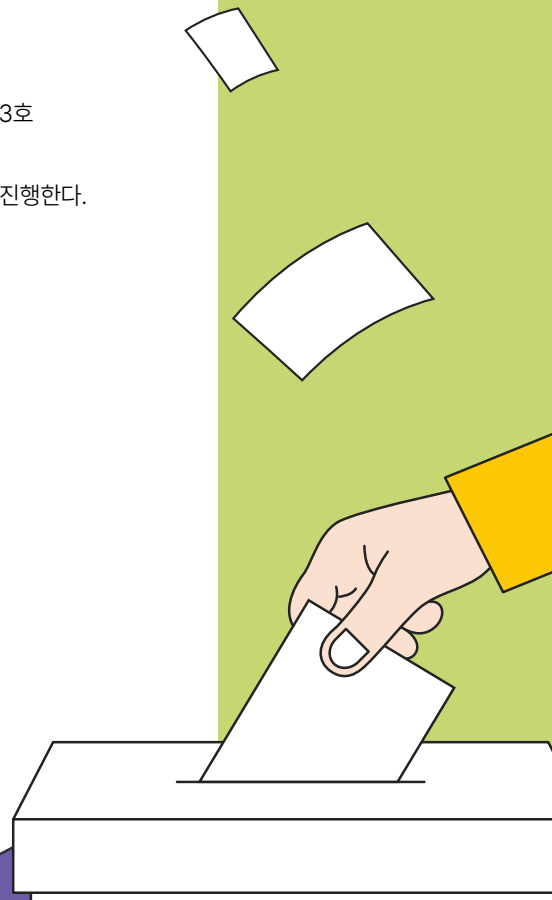
▣ 장로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41조)

장로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54조)

집사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영락교회 선거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용 희 장로**



영락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다
– 교회 마당에서 만나는 영락의 역사… ‘디지털역사관 스탬프 투어’

04

역사자료실(위원장 이일호 장로)은 지난 9월 13일(주일) 봉사관 마당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홍보 행사를 열었다. 역사자료실의 사역을 널리 알리고, 새롭게 구축된 ‘디지털역사관’을 성도들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교회 내 역사적 장소 6곳을 직접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가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각 장소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디지털역사관의 다채로운 역사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체험했다. 코스를 완주한 성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하며 참여의 기쁨을 더했다**(우측사진 : 백세명(4남 총무) 강희주(4여 회장))**. 이번 행사는 제3남선교회와 사회봉사부의 헌신적인 협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치러졌다. 역사자료실은 앞으로도 성도들이 교회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은혜의 여정
– ‘구술 인터뷰’

1

2

3

역사자료실은 9월 2일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50주년기념관에서 교회의 산증인들을 모시고 구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에는 한정현 은퇴장로**(사진1)**, 박호전 은퇴안수집사**(사진2)**, 박순태 원로장로**(사진3 가운데)**가 참여해 영락교회와 함께 걸어온 신앙의 궤적과 눈물의 기도, 헌신의 사역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평생을 교회의 기둥으로 헌신해 온 선배들의 구술 증언은 지나온 역사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귀중한 사료로 보존된다. 역사자료실은 앞으로도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궤적을 지속적으로 채록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구술 기록은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세대가 영락의 자랑스러운 신앙 전통을 계승하는 따뜻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본당 지붕 기와 전면 교체공사 착공예배

05

지난 9월 5일(토) 선교관에서 시설관리부(부장 윤의성 장로) 주관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본당 지붕 기와 교체공사 착공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윤의성 장로의 인도로, 김순미 장로의 기도, 김운성 담임목사의 말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중보기도 시간에는 지혜를 모아 함께 지어져 가는 영락공동체가 되도록, 시작에서 준공까지 무사고로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했다.

지붕 기와 공사는 노후로 인한 누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본당의 보존 및 유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본당 앞 경사 구간에 설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성도의 이동 편의를 안전하게 돕게 된다. 이와 함께 무궁화동산 일부의 녹지 공간도 교회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교회는 50주년기념관 및 봉사관 리모델링 특별위원회와 시설관리부가 협력하며 다양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교회창립 10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세대 사역의 중심 공간을 마련하고, 교회 내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예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봉사관 엘리베이터 신설공사는 봉사관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2층과 3층에 엘리베이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연장하는 공사이다. 이 공사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연로하신 성도들이 교구 목사님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어 교구 목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봉사관 옥상을 성도들의 휴식과 청년,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가능한 스카이테라스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향후 젊은 성도들의 활동을 돕게 될 것이다.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북별관은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공간으로 조성된다. 북별관은 단순한 시설보수가 아닌 Y-CAMPUS라는 새로운 공간개념을 도입한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신앙적 교류공간이 되고 나아가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구현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교회 다음세대가 함께 미래를 구상하는 공유오피스, 소규모 집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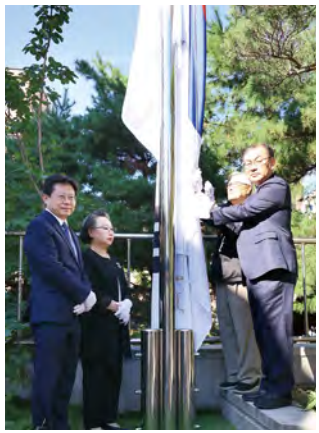
시설관리부에서는 앞으로도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며 성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통행 불편에 대해 성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선교관 옆 태극기 게양대 설치

06

지난 9월 5일(토) 선교관에서 열린 교체공사 착공예배 후 선교관 옆으로 이동하여 태극기 게양식을 했다. 우리 교회는 1945년 이북에서 월남한 성도들과 한경직 목사가 세운 교회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신앙의 자유를 지켜오며 성장해 왔다. 교회의 창립 정신과 신앙의 자유 가치를 기념하고, 다음세대에 역사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계승하고자, 사방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 후, 많은 성도가 함께한 가운데 태극기를 게양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애독자 참여코너

10월호 『만남』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만남』 제작을 위해 성도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래 내용을 적어 제출(QR코드 또는 이메일 youngnak-hb@daum.net) 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다음 호에 당첨자 발표 예정 / 당첨 응모나 기사 추천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소속(교구/봉사부서/교육부/기타): _____

1. 이번 달 『만남』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기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이유나 소감도 간단히 적어 주세요.

_____

2. 주변에서 『만남』 기사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교우들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채택 시 추후 취재를 통해 기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_____

지난 호 당첨을 축하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박유리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백성미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봉사관 503호
홍보출판부로 오셔서
선물을 수령해가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Jesus Washing Peter's Feet
1852~1856

포드 매독스 브라운
Ford Madox Brown
1821~1893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인 포드 매독스 브라운의 작품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당시 발을 씻겨 주는 일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담당하는 일이었지만, 이 그림에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대야에 물을 부어 그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직접 닦아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모으고 당혹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주변을 둘러싼 다른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섬김 앞에서 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인간이 보여주는 다양한 시선과 표정으로 이 뜻밖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오히려 모든 시선이 향하는 중심이 되어, 진정한 리더십과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임을 몸소 보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6년 10월호 통권 629호

발행 2026. 10.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헌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이신일 김정훈 김기선 박선이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최윤미 / 김천경 승윤영 유승아 이나영 이지민 정진이 최민혁 최한나
사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표지 설명

10월, 붉게 물든 단풍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떨어지는 잎새처럼 비워야 할 것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삶은 감사의 열매로 천천히 익어 갑니다.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8월

※ 교회 홈페이지 게재 기준

새가정 1 김주성, 이재란 가정

새아기

2 남도현(남기태, 정인기 가정)
3 민지오(민종현, 노혜인 가정)
4 최선율(최중열, 이승원 가정)
5 이하윤(이용준, 김안나 가정)
6 이한결(이준호, 이송이 가정)
7 차이지원(차이샤오샹, 김련주 가정)
8 서나경(서동현, 김민진 가정)
9 신영민(신동협, 김예진 가정)

▶ 새아기, 새가정, 군 입대로 주일 4부예배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성도께서는 각 교구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Jesus Washing Peter's Feet

포드 매독스 브라운 (Ford Madox Brown)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복음 13: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요한복음 1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8)